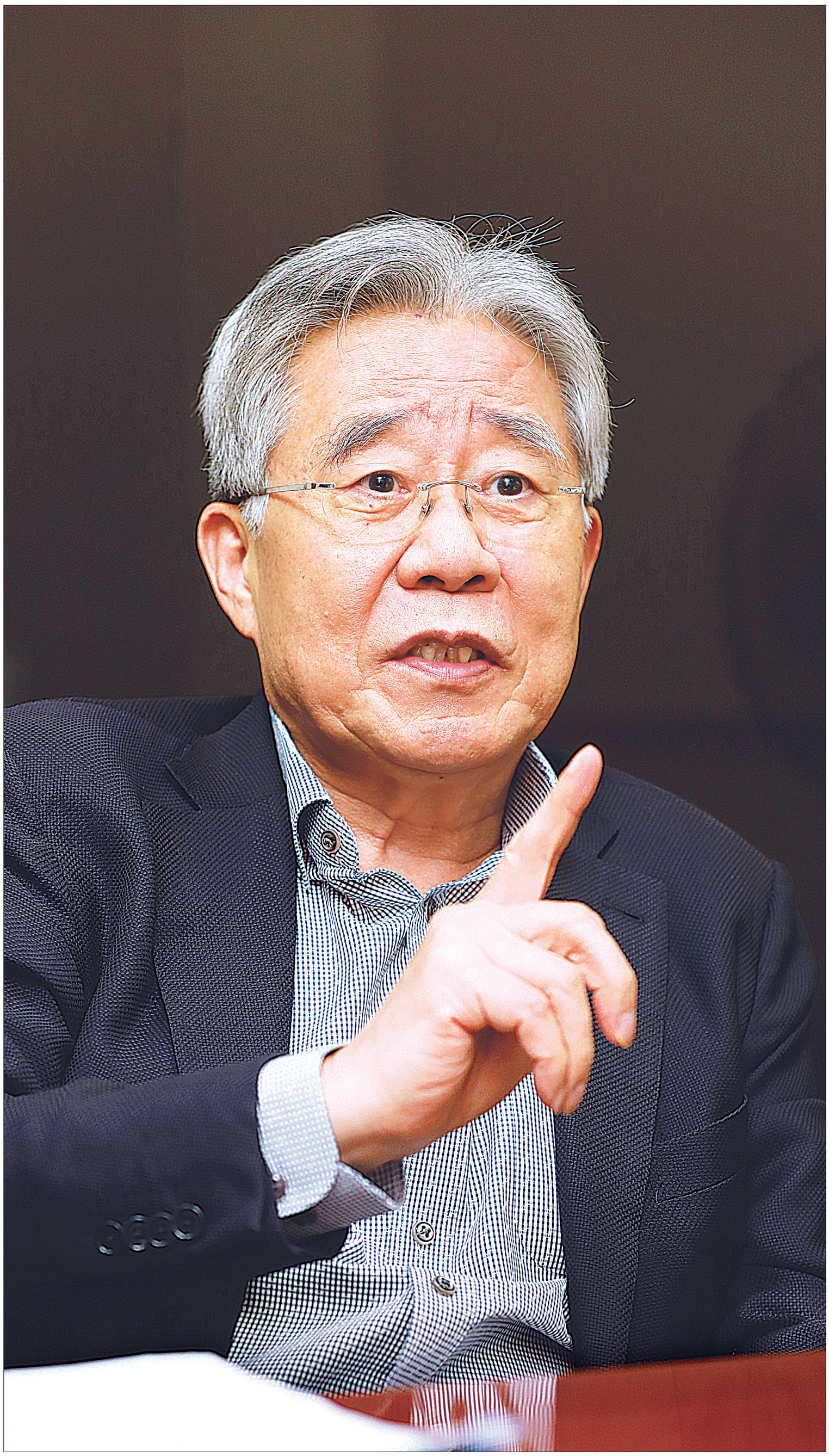
# 스타 검사출신 CEO…강원랜드 '명상힐링 1번지'로



함승희 변호사는… 1951년 강원도 양양군에서 태어났다. 서울양정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그리고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후버 연구소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인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근무하였다. 1993년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 율곡사업 비리 등을 파헤치며 주목받았다. 1996년 법무법인 대륙을 창립했으며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갑 선거구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이후 새천년민주당에서 원내부대표를 역임했다. 2014년부터 3년 간 강원랜드 대표이사도 맡았다. 현재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INSIDE
C5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아쇼까, 탁실라 부왕이 되다
C7 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한국의 선어록
C11 박원자의 母情佛心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

리더에게 聽 하다

**함승희**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변호사 〈前 강원랜드 사장〉

드라마 '모래시계'와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검사는 많은 조직폭력배들을 소탕한다. 드라마와 영화 속의 검사는 실제 검사를 모델로 하고 있다. 지금은 변호사인 함승희 前 검사다. 당시 1년 동안 280명의 조직폭력배를 검거한 기록은 기네스북에도 올라있다. 현대한국사에 전무후무한 역사를 쓴 함승희 변호사는 국회의원과 강원랜드 사장을 역임하면서 현대한국사에 또 다른 역사를 보태었다. 특히 '카지노'로 대변되는 강원랜드 사장 재임시에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 도박하는 곳에서 세계 불교성자를 초청한 세계명상대회를 열어 대성공을 거뒀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복합 문화공간으로의 지평을 넓혔다. 또한 그의 인생길 곳곳에서 불심의 흔적도 많아 부처님오신 날을 맞아 만나봤다. 〈편집자 주〉

대담=김주일 국장, 정리=박재완 기자

**Q. 첫 질문은 특수부 검사시절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함승희'라는 이름 석 자를 세상에 알린 계기여서 입니다. 당시 '함승희'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드라마 '모래시계' 속 검사,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 등장하는 조직폭력배 소탕 검사의 모델이었는데요. 그 증거로 1년간 조직폭력배 280명을 구속시키며 기네스북에도 이름을 올린 경력을 갖고 있어서입니다. 전무후무한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 당시 어떻게 이런 기록이 가능했는지요?**

A. 조직폭력배는 원래 검사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이 하는 거죠. 그런데 1989년 정부에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걸 선포했어요. 그 당시 집값이 많이 오르고 노동운동이 전에 없이 격해지는 등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고 민생과 치안이 좋지 못했어요. 그런데다가 당시에 승합차를 이용해 부녀자들을 납치하는 인신매매 범죄로 사회 분위기가 많이 불안하고 어수선했죠. 그래서 정부가 국면전환을 위해 '민생'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전국 검찰에 민생침해 사범 위주로 수사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특수부를 '민생특수부'로 이름까지 바꾸었지요. 그때부터 폭력배 검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 때 유명한 조직폭력배 두목들도 많이 검거했죠.

**Q. 1992년 대검찰청 중앙 수사부 검사를 역임하는 등 검찰 내에서 승승장구하며 비교적 탄탄대로가 보장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는데, 돌연 1996년 법무법인 〈대륙〉을 창립하고 변호사로 전업하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A. 제가 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전, 마지막으로 동화은행장 비자금 사건을 수사했어요. 그것은 당시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하는 일이라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어서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담당 검사는 어떤 대가를 치를지 모르는 상황이 됐죠. 수사가 마무리(?)되고 저는 서산 지청장으로 발령받게 되는데, 표면적으로는 승진발령이지만 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인사였죠. 아무튼 지청장으로 발령이 났으니 이제 수사 검사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때부터는 부장검사로 일해야 하는데 그때 제 나이가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수사는 평검사가 하는데 수사검사로서는 할 일 다했다고 생각했죠.

**Q 2000년에는 제16대 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서울 노원갑에 출마, 당선되고 정치인으로 변신하였는데요. 정계에 진출하게 된 특별한 연유가 있으신가요?**

A. 변호사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모 출판사의 권유로 검사 시절 이야기를 자서전 형식으로 출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책이 나오자마자 정치권의 예민한 사안에 휘말리게 됐어요. 검사 시절 이야기이다 보니 정치권에서 주목했던 것 같은데, 책에 언급되지도 않은 사안을 교묘하게 이용해 사회적 이슈를 만들더군요. 실제 책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언급 자체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 바람에 제 책은 많이 팔렸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그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됐죠. 그래서 한 2년 동안 해외로 나가서 공부를 하기로 하고 스탠포드, 하버드 등 유명 대학의 컨퍼런스를 찾아다니며 공부하고 돌아왔죠.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출마 제의를 받게 됐어요. 하지만 전혀 생각해본 적 없는 일이라 일언에 거절했죠. 제가 여러 국회의원을 수사하고 구속까지 했던 사람인데,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정말 난센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치권의 권유가 집요했어요. 제가 거듭 거절을 하니까 나중에는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서 권유해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국회의원 출마를 하게 됐고, 우여곡절 끝에 당선됐지요.

**드라마 '모래시계' 속 실제 검사
1년 간 조직 폭력배 280명 구속
1996년 로펌설립하고 변호사로
2000년 제 16대 국회의원 당선
부패방지 자금 세탁방지법 제정
국민자유 침해 테러방지법 반대**

**Q. 정치를 하면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공적이라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평소 정치철학이라고 강조하는 좌우명이 있으면 들려주시지요.**

A. 자금세탁방지법 제정한 것이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부패를 견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률을 꼽는다면 금융 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법이 우리나라의 부패를 견제하는 양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의 제정과는 반대로 법안을 폐기했던 일도 있었는데, '테러방지법'이었습니다. 당시 911테러가 발생해서 국제적으로 테러에 대한 걱정이 많을 때였어요. 법안의 취지는 좋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니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의 자유가 지나치게 침해당하는 것이어서 반대했어요. 결국 테러방지법은 상정되지 못했죠. 그 두 가지가 국회의원 하면서 가장 잘 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국민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 정치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2면에 계속